

# “내 얼굴 따라하는 ‘이모지’ 부터 듀얼 스피커까지...”

〈아바타〉

## | 체험기 | 삼성전자 갤럭시 S9

영등포 타임스퀘어 ‘갤럭시 스튜디오’  
AR·이모지·슈퍼슬로 등 부스 운영

갤럭시 S9와 S9+의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갤럭시 S9 시리즈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가 열렸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체험공간은 크게 증강현실(AR) 이모지(유니코드 체계를 이용해 만든 그림 문자), 슈퍼 슬로 모션, 듀얼 조리개, 텍스 패드로 나눠 구성됐다.

‘AR 이모지’ 기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모지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3D 아바타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사용방법은 간단했다. 카메라로 내 얼굴을 찍고 성별을 선택하니 나와 닮은 캐릭터가 화면에 나타나 움직였다. 끝이 아니다. 피부톤을 조절할 수 있고 41가지 스타일의 머리, 7개의 안경, 9벌의 옷 중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나만의 이모지를 꾸밀 수 있다.

부스 관계자는 “이모지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완성된 이모지로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다. 눈을 깜빡이거나 링크를 하고, 고개를 흔들고 입을 벌려봤다. 이모지가 그대로 따라 했다.

이렇게 만든 이모지는 메신저나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모지를 만드는 순간 웃는 표정, 화난 표정 등 18가지의 감정 표현이 스티커로 자동 저장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이모티콘이 만



28일 갤럭시 스튜디오를 찾은 방문객이 갤럭시S9의 슈퍼슬로 모션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들어지는 셈이다.

다음으로 초고속 카메라 기능인 ‘슈퍼슬로 모션’을 이용했다. 꽃잎이 빠르게 떨어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으니 카메라가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촬영했다. 잠시 후 아주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는 영상이 나타났다. 0.2초의 시간을 6.4초로 늘린 결과다.

영상에는 자동으로 배경음악이 설정되는데 배경음악을 바꾸거나 소리를 없앨 수 있고 그 외에 자신이 원하는 음악도 넣을 수 있다. 몇 초 만에 그럴싸한 영상이 완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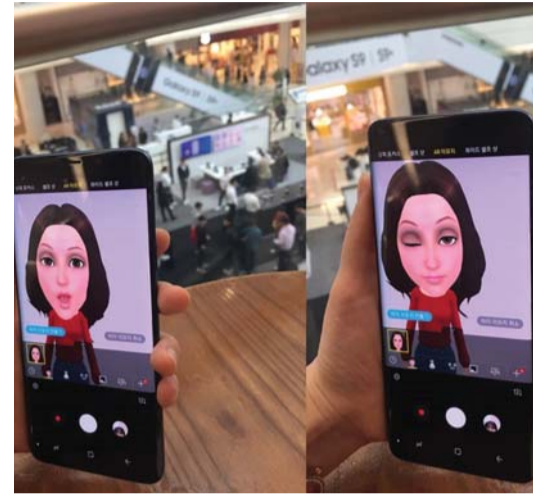
갤러리에 저장된 영상을 바로 편집도 할 수 있다. 가위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편집화면이 나타났다.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저장해보기도 하고 영상을 정상적으로 재생하는 ‘루프’, 역방향으로 재생하는 ‘리버스’, 특정 구간을 앞뒤로 번갈아 재생하는 ‘스윙’을 눌러봤다. 리버스를 누르자 꽃잎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연신 “우와”라고 외치며 감탄했다. 영상은 GIF 파

일로 저장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갤럭시 S9·S9+(플러스) 공개 당시 많은 외신이 극찬한 카메라 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F1.5와 F2.4의 가변 조리개가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어두운 곳에서는 F1.5 조리개로, 밝은 곳에서는 F2.4 조리개로 주변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변한다.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어두운 곳에서는 빛 번짐을 최소화해 찍을 수 있고 밝은 곳에서는 노이즈 없이 찍을 수 있다. 조리개의 변화에 따라 렌즈의 구경도 같이 움직였다.

직접 촬영을 해보니 조리개의 중요성이 느껴졌다. 우선 어두운 곳의 물체를 눈으로 봤다. 보이긴 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갤럭시 S9의 카메라를 갖다 대니 또렷하게 나타났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순간까지 찍는 스마트폰’이라는 문구가 와닿았다. 다른 스마트폰 3대로 찍어보니 어렵게 찍히거나 아예 초점도 잡지 못했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따라하는 ‘AR 이모지’

듀얼스피커에도 눈길이 갔다. 갤럭시 S9에는 상단과 하단에 두개의 스피커가 있다. AKG 기술로 완성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 기존 스마트폰보다 훨씬 깊고 웅장한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갤럭시 S9+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지문센서의 위치가 카메라렌즈 밑으로 이동한 점이었다. 이전 모델인 S8+는 카메라렌즈 옆에 지문센서가 붙어 있어 지문을 댈 때마다 카메라 렌즈에 닿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부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지문을 렌즈 아래로 옮겼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튜디오 등 체험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삼성동 코엑스와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갤럭시 스튜디오를 포함해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이동통신 매장 등 전국 4000여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

글·사진=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갤럭시S9, ‘가장 완벽한’ 디스플레이로 선정

美 디스플레이메이트 평가 ‘엑셀런트 A+’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18’에서 공개한 갤럭시S9이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전문 기관인 미국 디스플레이메이트의 화질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엑셀런트 A+’ 등급을 획득했다.

1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갤럭시S9는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디스플레이메이트가 공개한 평가 결과에서 주요 평가항목인 밝기, 야외시인성, 색재현력 등에서 전작인 갤럭시S8의 디스플레이 성능을 뛰어넘었다. 특히 색 정확도에서도 디스플레이메이트 평가 사상 가장 완벽한 디스플레이로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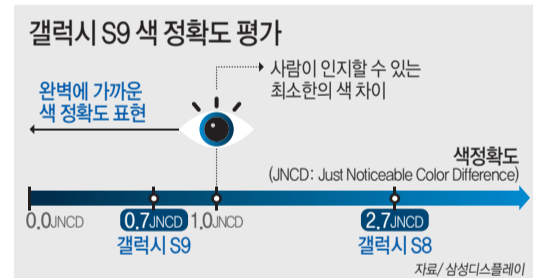
갤럭시S9는 5.8인치에 3K QHD+(2960×1440) 해상도의 OLED를 탑재해, 크기와 해상도 면에서 전작인 갤럭시S8과 동일한 규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색 정확도와 밝기, 반사율 등 화질 관련 성능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9는 디스플레이메이트의 색 정확도 평가에서 0.7 JNCD(DCI-P3, 시네마 모드 평균 기준)로 측정돼 갤럭시S8의 2.7 JNCD와 비교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

JNCD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색차이’를 의미하는 색 정확도 단위이다. 올바로 표현해야 할 좌표의 색과 실제로 디스플레이에서 표현

되는 좌표의 색이 서로 차이 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치가 1보다 낮은 경우에 인간의 눈으로 색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의미한다.

디스플레이의 색 정확도가 높을수록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모습을 그대로 화면에 재현해 낸다. 갤럭시S9의 향상된 색 정확도는 왜곡을 최소화,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비롯한 각종 이미지와 영상을 더욱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갤럭시S9는 최대 밝기와 반사율도 개선됐다. 갤럭시S9의 최대 밝기는 1130cd/m<sup>2</sup>(칸델라)로 갤럭시S8의 1020cd/m<sup>2</sup>보다 10.7% 더 밝아졌다. 1130cd/m<sup>2</sup>는 가로세로 1미터의 상자에 촛불 1130개를 등



시에 켜 놓은 밝기를 뜻한다. 화면 반사율도 4.4%로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 야외 시인성 개선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갤럭시S9는 고화질 디스플레이 규격 인증 기관인 ‘UHD얼라이언스’로부터 고품질 HDR 영상 재생을 지원하는 기기에 부여하는 ‘모바일 HDR프리미엄’ 인증을 받아 4K 초고해상도 HDR 콘텐츠를 보다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정명민 기자 21cindin@



구서윤 기자

지난 28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S9와 LG전자 ‘V30S 씽큐’가 동시에 예약판매에 돌입하면서 겨울잠을 자던 이동통신 시장 대전의 막이 올랐다. 3월 신학기 특수와 겹치며 이동통신 업체도 다양한 프로모션과 혜택을 내놓으며 고객 끌기에 나섰다.

예약판매 첫 날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은 대체적으로

## ‘갤럭시 S9’ 동시 예약판매 돌입 ‘V30S 씽큐’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주말을 거치면서 갤럭시S9, V30S 씽큐 반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월 28일 공식 대리점과 온라인몰을 통해 갤럭시S9와 갤럭시S9+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갤럭시S9(64GB) 출고가는 95만7000원. 갤럭시S9+는 64GB가 105만6000원, 256GB는 115만5000원이다.

삼성전자 S9 시리즈는 자급제 단말기로도 예약구매를 할 수 있다. 자급제 모델은 통신사 약정 없는 공개계 스마트폰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요금제를 마음대로 골라 가입할 수 있으며 각 통신사

가 제공하는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V30S’ 시리즈는 LG전자가 2017년 하반기 출시한 ‘V30’ 시리즈의 업그레이드형 모델이다. 램 용량이 4GB에서 6GB로 확장된 것을 제외한 기본 하드웨어는 동일하지만 인공지능(AI) 같은 소프트웨어가 향상된 모델이다. 내장 플래시 메모리 용량에 따라 128GB V30S, 256GB V30S+가 있다. 가격은 각각 104만8300원, V30S+는 109만7800원이다.

갤럭시S9의 세가지 색상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상은 미드나잇블랙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갤럭시S9+ 미드나잇블랙 256GB였고, KT의



연합뉴스

경우 갤럭시S9 미드나잇블랙 64GB의 주문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한편, 갤럭시S9 시리즈의 공식 출시일은 3월 16일이다. 다만, 예약판매 고객에 대한 선개통은 3월 9일부터 이뤄진다. V30S 시리즈의 공식 출시일은 3월 9일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